KOTRA, 아부다비 투자상담회 개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군주국가 가운데 석유자원이 가장 풍부한 아부다비가 투자자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KOTRA는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회계법인, 인력컨설팅기관, 14개 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아부다비 투자유치 사절단을 초청한 가운데 9월 10-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투자환경 세미나와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월9일 발표했다.

9월10일 오전 세미나에서는 KOTRA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현지 상공회의소 등의 전문가들이 두바이의 투자환경과 진출방안, 투자진출 절차, 개발 프로젝트 현황, 전문인력 확보 방안과 기업현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중동아프리카의 플랜트공사 전문기업인 아마나그룹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기업인 알 쿠드라, 오일가스 기자재 기업인 NBB, GASOS 등 참가기업들은 오일가스·석유화학·담수·전력 프로젝트, 철골구조물, 오일가스 기자재, 건축기자재, 부동산 개발 등 사업분야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9월 10-11일 진행되는 투자 상담회에서는 아부다비기업과 한국의 아부다비 진출희망기업간의 1대1 상담이 진행된다.

중동 자원 부국 UAE는 두바이에 이어 아부다비의 <국가개조>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막대한 오일머니 가운데 250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해 제조업과 건설·관광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부문에서는 샤디앗섬, 림섬, 알라하 해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석유, 가스 매장량 세계 5위로 오일가스, 석유화학산업의 중심 도시이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남아시아, 유럽 등을 연결하는 세계의 경제, 관광, 물류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7/09/1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